

<태국 치앙마이 겨자씨 교회 /중국인 교회> 사역보고 및 기도편지

김성수 목사님과 김천 서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연약한 일꾼에 불과한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깊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는 장마가 와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피해는 없으신지요? 여름 장마와 더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과 사명대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5월, 저희가 잠시 교회를 방문했을 때, 목사님 내외분과 교회가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내외는 태국으로 돌아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이곳 교회 소식과 저희의 소식을 알려 드리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교회와 예배를 위한 단독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금년 초에 3개월간 저희 집 거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5월 초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인근에 교회를 위한 단독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소중함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언제나 와서 기도하는 곳이며,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해야 할 거룩한 처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외부 전경>



<예배실 전경 / 옆에 방 2칸, 부엌>

2. 개척된 교회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清迈 芥菜种 教会(치앙마이 겨자씨 교회)입니다. 지난 4월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면서, 겨자씨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마 13:31)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한 개인과 공동체에 작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역사, 즉 작은 씨앗이 마침내 나무가 되는 역사를 새기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 가자는 뜻으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겨자씨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이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첫 번째 세례자와 세례식,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례자 - 刘 晶>



세례식을 위한 예배 5월 11일(토)



<성 찬 예 식>

세례(침례)를 받은 刘 晶 자매는 세례를 받기 전, 마지막 문답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약속된 말씀과 축복을 듣고(요 5:24), 펄펄 울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감격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이 아무도 주님을 모른다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자매와 함께 기도하면서, 품게 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 자매를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복음을 듣고, 또한 그들을 통해 그곳에 교회도 세워지고, 복음도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매가 중국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까지 복음을 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자매가 세례를 받을 때, 중국에서 일하셨던 선교사님 몇 분이 예배에 오셔서, 함께 자매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모두 중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4.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 월간지 『중국을 주께로』(263호)에 게재된 논문(중국인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양홍엽)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최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위한 목회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곳 태국 치앙마이에도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중국으로 귀국했을 때,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역사가 지속되도록 돕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5. 양육을 위한 성경 공부가 5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의 양육을 위한 성경 공부는 <어? 성경이 읽히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학기에 <구약>편을 공부하였고, 가을학기에는 구약을 복습하고 <신약>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육을 위한 성경 공부는 서연화 사모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동안은 세례 문답 공부와 성경 공부를 1주일에 2회,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6. 아내의 뇌종양 치료(감마 나이프 수술)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난 5월 20일부터 아산병원에 세 차례에 걸쳐 <감마 나이프 수술>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뇌종양 수술을 받고 난 다음, 남아 있었던 종양이 다시 자라고 있다고 해서, 남은 종양(크기-3cm)의 표면을 괴사시키는 치료(감마 나이프 수술)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며칠 동안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힘들었지만,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저희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신 교회와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어지러운 증상과 함께 예상치 못한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뇌압을 높일 위험이 있는 일들은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MRI 촬영을 해서, 남은 종양의 상태를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7. 기도 제목

- 세례받은 가정(네 식구)이 지금 방학 기간 중, 중국(긴장이 심한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말씀 읽기와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통해 그 땅에도 예배 공동체와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이곳 치앙마이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 복음 전파를 위한 기회를 잘 만들어 가도록.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겨자씨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른 복음 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제가 중국어로 하는 설교를 잘 준비하고, 또한 중국어 습득이 원활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채 晶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위해.
- 아내의 건강 회복과 머리 속에 남은 종양이 사라지기를 위해.

2024. 7. 9.

치앙마이에서. 장성원(서연화)선교사 드림.